국제표준화에서의 대응자세

"IT와 BT분야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므로 이들 분야에서 표준화 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여 이를 국제 표준화하는데 민, 관, 학계가 합심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이준웅 교수
joonung@daisy.kw.ac.kr

1. 서론

정보화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EU, NAFTA 등 지역 연합체가 결성되어 세계 경제권은 단일화되고 지역패권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치열한 경제전쟁을 치루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들은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여건속에서 하나의 표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Global Standards)이 세계를 지배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표준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으면 그 기술은 시장에서 배척당하고 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96년 홍콩 행정청은 " 공공사업에 입찰하려는 기업은 국제표준화기구 ISO 9000 인증을 따야 한다." 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전까지 ISO 9000보다 더 엄격하게 품질시스템을 적용하여 독점 건설해오던 일본은 그로부터 ISO 9000 인증을 받기까지 5년 동안 홍콩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나, 이와 같이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기술은 사장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표준을 지배하는 나라가 곧 세계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표준이 곧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표준화에 대해 능동적인 생각

을 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도 세계 속의 표준화를 선도하는 대열에 조속히 진입해야 할 것이다.

2. 미래 표준화방향

오늘날 우리의 교육 및 생활수준이 나날이 향상되어 생활의 개성화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미래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될 것이므로 사람의 취향자체도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욕구가 급격하게 변화함을 예상하여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생산의 측면에서도 고품질과 저비용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 방책으로도 표준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사회의 특징은 보다 더 국제화되고 고도 기술과 정보화 및 환경친화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는 표준 또는 표준화의 기틀을 다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은 각국의 무역활성화를 가져왔으며 무역량의 80%이상이 표준 규격화된 제품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표준화는 매우 중요하며 각국은 ISO 국제표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3. 표준의 국제화

미래사회는 표준을 선도하는 나라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활동 공간이 확대되고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이 국제화 되면서 국제 표준이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국제 표준화는 기업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면 일본은 국내 표준에 안주하다가 국제 사회에서 거듭 쓴잔을 마신바 있는데 2000년 이후 일본 정부 차원에서 국제 표준화 사업에 86억 원을 투입하여 기계, 물류 등 11개 일본 기술을 국제 표준화 하는데 성공하여 일본 기술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 11개 분야에서 이룬 경제 효과는 무려 8조 2천억 원이라고 일본 정부는 분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국제 표준화는 나라의 부를 가져오는 중요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도 2002년 5월부터 중국에서 판매 수입되는 제품에 정부의 강제 인증제(CCC) 마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하여 내수 시장을 보호하고 중국 제품을 국제표준화하는데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한편 자국의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선진국들의 주도권 싸움은 나날이 치열한데 유럽은 표준을 수단으로 하여 세계 시장에서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ISO 나 IEC 등의 국제 위원회에 자국의 위원들을 진출시켜 자국의 국익에 앞장서게 하고 있다

4.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의 우리의 위상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공적 표준화 기구(de jure Standards Organization)와 사실 표준화 기구(de facto Standards Organization) 등 두 기구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인 국제 표준화 기구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국가가 일반적으로 그 위원회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 표준화 기구 중 ISO와 IEC가 매우 중요한

국제기구라 할 수 있는데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IEC)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그리 낮은 편은 아니라 할 수 있다.

1947년도와 1906년에 각각 창설된 ISO와 IEC에 우리나라는 1963년도에 각각 가입하였는데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및 독일 등 선진국 보다는 늦었지만 타 중진국보다는 가입이 늦은 편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ISO에 3억 9천만 원, IEC에 1억 7천만 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세계 10위권 규모의 분담금을 내는 국가에 해당하는데 내는 분담금에 비하여 그 영향은 크게 못 미친다 할 수 있다. 즉 표준 기구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280개 기술 위원회 중 230개 위원회에 정회원으로 우리나라는 가입되어 있는데 정작 중요한 국제 표준 기구 위원회 간사 진출은 12명에 불과하다. 이 중 11명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개인의 역량으로 간사직에 진출하였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간사 만들기를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표준회의에 비교적 많은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는데 2004년도 총 568회에 3700명이 참석하였으나 국제 표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우리의 위상이 신장되고 우리의 기술이 표준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과 재정적인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국제 표준회의에 민, 관 합동 대표단을 파견하고 통역관 2명이상이 따라 간다고 한다. 중국도 10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가하여 자국 대표를 간사로 선출하게 하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나 중국의 국제 표준 활동 상황을 잘 파악하여 민, 관, 학계 연합 대표단을 파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소요경비를 비롯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미래 각광받는 산업분야로는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 BT(생명기술), ST(우주산업기술) 및 CT(문화산업) 등 5개 분야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들 분야 중 IT와 BT분야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므로 이들 분야에서 표준화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여 이를 국제 표준화하는데 민, 관, 학계가 합심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